

“별보다 빛나는 시로 중학생 친구들 응원할래요”

경신중 학생·교사, 시집 ‘별보다 빛나는 나’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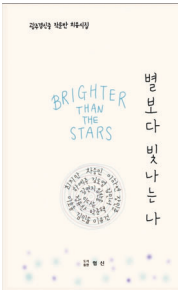
14명 참여 치유시집 펴내...이호동 교사, 사비로 200부 발간
“짧은 시의 진심이 더 깊은 울림 전해...시가 ‘꿈의 씨앗’ 되길”

“우리와 함께 보내던 작문반은 단순히 시를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글자와 문장 속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어요.”

최근 광주의 중학교 작문반 학생들이 시집을 펴내 화제다. 주인공은 경신중 작문반 학생들과 지도교사 이호동 선생님. 이호동 교사는 작문반 학생들과 ‘별보다 빛나는 나’ (도서출판 협신)를 발간했다.

14명의 학생들과 교사가 저자로 참여한 치유시집은 별빛처럼 빛나는 중학교 학생들의 따스한 마음과 80여 편의 시가 담겨 있다. 참여 학생들은 김연지, 임찬솔, 이다은, 박준혁, 김민서, 김도영, 하예주, 정유찬, 김민솔, 이유진, 장민준, 이하연, 차승민, 최지안 등 모두 14명이다. 시집은 이 교사가 사비를 들여 200부를 발간했다.

이 교사는 “학기 초 작문반 학생들에게 시집을 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올해 1학년 학생들을 보면서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과 학교 공부에 지쳐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중학생들이 시집을 발간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 요즘 학생들은 뭔가를 쓰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경신중 작문반도 처음에는 정원이 다 차지 않았다. 이 교사에 따르면 4년째 작문반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지만 올해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고민 끝에 1학년 교실 문 앞에 “자신의 꿈을 이루고픈 학생은 여기로 오세요”라는 문구를 부착했다.

이후 아이들이 하나 둘씩 문을 두드렸고 14명이 모이졌다. 그는 “그 문장을 믿고 모여든 학생들이 있었다”며 “짧은 문장과 시에 담긴 진심이 때로는 한 권의 책보다 깊은 울림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소설가가 꿈인 김민서 학생은 시 쓰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말했다. “‘꿈을 이루고픈 학생은 여기로

들어오세요’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 다. 그 말에 끌려 들어간 곳이 이호동 선생님이 운영하는 작문반 동아리였어요.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연말에 작문반 시집을 꼭 내겠다고 약속하셨죠.”

김민서 학생은 시를 쓰며 친구의 소중한 도,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느끼게 됐다고도 했다. 다른 학생들도 “우리가 쓴 시에는 진실과 용기 그리고 치유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라며 “작은 빛이지만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수업은 학생들이 쓴 시를 이 교사가 조금씩 고쳐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시 쓰는 요령이 아닌 ‘시가 다시 삶을 견뎌내는 희망이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이 교사는 “이 작은 시들이 언젠가 더 큰 꿈의 씨앗이 돼 아이들 각자의 길에서 꽃을 피울 것으로 믿는다”며 “그 꽃은 또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광주 경신중 작문반 학생들과 이호동 지도교사가 치유시집 ‘별보다 빛나는 나’를 펴냈다. 포즈를 취한 선생님과 학생들. (이호동 교사 제공)

시인이자 학교 폭력 근절 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교사는 시집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양림동 동행’ 등을 펴냈다. 순수문학 평은 대 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4대한민국 SVE특별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북현 교장은 “‘별보다 빛나는 나’라는 시집 제목처럼 우리 학생들은 모두 저마다의 빛을 품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빛으로 자신과 세상을 환히 비출 존재들”이라며 “이 작은 책이 많은 이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안과 용기를 전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경우회, 임선숙 변호사에 감사패

‘5·18 발포명령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명예 회복 기여

고(故)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끈 임선숙 전 광주지방법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28일 광주시 재향장우회(회장 김진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임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다 희생된 고(故)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률대리를 맡아 안 치안감의 명예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치안감의 유족들은 지난 2023년부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으며, 2심 재판부는 안 치안감 본

인의 위자료와 가족들의 위자료, 국가가 미지급한 유족연금 등 정부에 총 2억 5000만 원의 배상을 주문했다.

안 치안감은 전남도 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월 시위대를 겨냥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직위 해제된 뒤 5월 26일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8일간 고문을 당하고 6월 2일 강제 사직당했으며,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10일 끝내 숨졌다. 안 치안감은 지난 2002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됐으며 2005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 경찰

묘역에 안장됐다. 2006년엔 순직 인정을 받아 국가 유공자가 됐다.

2017년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1계급 특진 추서로 치안감이 됐고, 경찰청은 그를 ‘경찰 영웅 1호’로 선정했다.

임 변호사는 “안 치안감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군부에 저항한 책임자로 큰 존경을 남겼다”며 “소멸 시효 기산점에 대한 논란, 안 치안감이 강제 해직 당할 때 표면적으로 ‘의원 면직’으로 처리된 점, 국가유공자 지원금이 따른 이중 보상 등 쟁점이 많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점쳐졌으나, 재판 끝에 의미 있는 판결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5·18 당시 안 치안감의 명령을 받아 수행했던 경찰서장 등 10여명도 징계 면직당하는 등 신군부의 압력을 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iyou@



롯데리아 호남협의회, 기부물품 전달식 가제

롯데리아 호남협의회는 27일 시청 비즈니스실에서 광주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호남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에 1만원 상당 상품권 1400매를 기부했으며,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를 지역 요양원 어르신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황승희 롯데리아 호남협의회장은 “롯데리아가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리아 호남협의회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90여 개 가맹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권역별 8개 협의회 중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기부행사를 진행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적십자 광주·전남혈액원, 헌혈유공자의 집 명패 전달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헌혈의집 목포센터에서 헌혈 400회 이상 헌혈자 예우를 위한 ‘헌혈유공자의 집 명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이 2025년도 광주전남 400회 이상 헌혈자 8명 중 김시형(415회), 박종선(413회)씨에게 대표로 명패

를 수여했다.

헌혈유공자의 집 명패는 헌혈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전달하고 있다올해까지 전국 헌혈 400회 이상 또는 전월 100회 헌혈자 504명에게 수여됐으며 광주전남에서는41명이 수상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5 FAX 062-222-4918

화촉

▲조경완(전 호남대교수,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강정현(전 경신여고 교사)씨 아들 영호(LH 광주전남본부)군, 한철(광산구청)·문정씨 딸 초희(제이엘치과의원)양=12월 7일 오후2시 웨딩그룹 위더스광주 3층아모르홀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사·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

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속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

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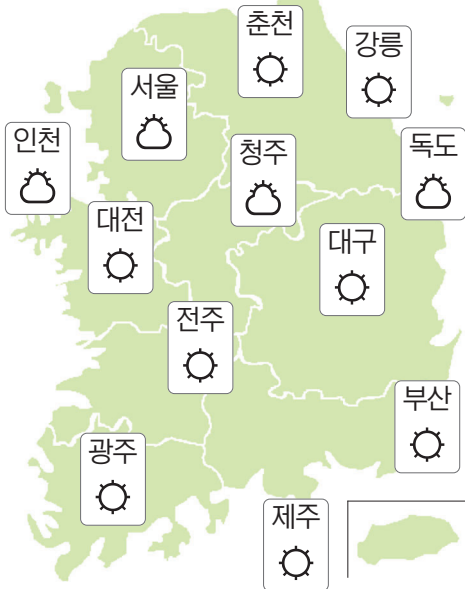
해뜨	07:22	달뜨	14:23
해짐	17:20	달짐	02:41

미세먼지 나쁨

이번주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다.

광주	맑음	7/12	보성	맑음	5/12
목포	맑음	9/11	순천	맑음	7/13
여수	맑음	10/14	영광	맑음	6/10
나주	맑음	5/12	진도	맑음	8/12
완도	맑음	9/14	전주	맑음	6/11
구례	맑음	6/13	군산	맑음	5/11
강진	맑음	8/13	남원	맑음	5/11
해남	맑음	8/12	흑산도	맑음	9/11
장성	맑음	5/12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5	1.0~2.0
	면바다(북)	1.0~2.5	1.5~2.5
	면바다(남)	1.0~2.5	1.5~2.5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1.5
	면바다(서)	0.5~1.5	1.0~2.0
	면바다(동)	0.5~1.5	1.0~2.0

◇물때

	간조	만조
	03:36	10:35
목포	16:12	22:50
여수	11:43	05:48
	-:-	18:02

◇생활지수

	미세먼지	나쁨
--	------	----

◇주간 날씨

2(화)	3(수)	4(목)
3/8	-1/3	-1/8
5(금)	6(토)	7(일)
1/7	0/11	5/12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32-1542.

▲시립산수도서관 생활문화동아리 한글 서예반 회원모집=한문서예·문인화·한글서예 동아리 ‘서사모’ 2005년도 창립, 매주 화요일 4~6시, 회비 무료 010-3636-6410.